

성구화된 로어문장구조식의 분류와 그 번역실천

김 원 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학습에서는 발음법을 잘 익히고 단어를 많이 외우며 문법에 숙달하고 회화와 번역의 묘리를 정확히 터득하는것이 중요합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198페이지)

현시기 학생들의 지적능력을 계발시킬수 있게 외국어교육내용을 잘 꾸리고 그것을 교수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능력있는 인재들로 준비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 글에서는 성구화된 로어문장구조식의 분류와 그 번역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론하려고 한다.

성구화된 로어문장구조식을 이루고있는 요소들이 기능의 측면에서 자기 고유의 어휘적의미를 상실하는 특성은 번역실천에서 큰 난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실례로 《Для меня это слишком сложная задача. Где мне её решить?》(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힘든 문제이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단말인가?)에서 부사 Где는 장소를 나타내는 본래의 어휘적의미를 상실하고 как, как же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표현정서적뜻빛깔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1960년대초 이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관심을 돌리고 연구를 시작한 로씨야학자 슈멜료브는 《의무적인 배열순서와 엄격히 제한된 문법적형식을 가지고있는》 이러한 구조를 성구적구조식(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схемы конструкции)이라고 규정하였다. 그후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슈웨도바, 꼬두호브, 쏘가니크, 쌀민, 밀리깐, 웰리치코 등 여러 로씨야언어학자들의 관심속에 더욱 심화연구되어 《문장론적성구》(синтаксические фразеологизмы), 《성구화된 문장론적모형》(фразеологизированные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модели), 《성구화된 문장》(фразеологизирова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등 여러가지로 규정되어왔다. 학자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인것은 이러한 구조가 공고한 결합속에서 일정한 구조식을 가지며 그 구조식을 이루는 개별적요소들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결합관계속에서 굳어진 의미와 함께 양태적의미를 표현하면서 일정한 정황속에서 재현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일상언어생활에서는 흔히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고있다는것이다. 이로부터 이와 같은 구조식을 《성구화된 문장구조식》(фразеологизированные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схемы конструкции)이라고 총괄하여 규정할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부류를 어떻게 구분하여 보는가 하는것이다. 대다수 로씨야언어학자들은 문장구조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조의 측면에서 구분하고있다. 실례로 슈웨도바는 자기의 연구에서 이 구조식에 참가하는 구성요소들의 특성에 따라 문장구조식들을 접속사를 가진 성구적문장(Фразеологизирова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с союзами), 전치사를 가진 성구적문장(Фразеологизирова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с предлогами), 조사를 가진 성구적문장(Фразеологизирова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с частицами), 감동사를 가진 성구적

문장(Фразеологизирова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с междометием), 대명사적단어들을 가진 성구적문장(Фразеологизирова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с местоименными словами)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은 로어를 모국어로 하고있는 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으나 로어를 외국어로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점들을 산생시킨다. 그것은 외국어연구가 연구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와 자유로운 활용에 있는것과 관련된다. 우의 구분은 구조적인 측면에 치우치면서 의미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한 부류에서도 의미적으로 서로 대치되는 구조식들이 존재하게 된다는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구화된 문장구조식들은 로어를 외국어로 연구하는 견지에서 의미적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분해보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로어의 성구화된 문장구조식이 말하는 사람의 양태성 즉 주관양태적의미를 나타내고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태적의미를 기준으로 구분하는것이 보다 과학적으로 합당한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은 로어에 존재하는 성구화된 문장구조식들을 정확히 이해한데 기초하여 우리 말로 번역하고 옹계 활용하는데서도 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성구화된 로어문장구조식들을 평가적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 동의, 접수,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 거절, 반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 불가피성, 합리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 불필요성, 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 단수,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 논리적제약성, 상황적특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들로 구분할수 있다.

성구화된 로어문장은 우선 평가적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들(Схемы с выражением оценки)로 구분할수 있다.

여기에는 긍정적평가와 부정적평가, 중성적평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들이 존재한다.

례: —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구조식들

- Вот это мастер! (정말 훌륭한 기능공입니다!)
- Чем не подарок! (나무랄데 없는 선물입니다!)
- Всем пирогам пирог! (빼로그중에 가장 훌륭한 빼로그입니다!)
- Из хитрецов хитрец! (제일령리한자이다!)

—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구조식들

- Какой это концерт! (이것도 공연이야!)
- Что за характер! (성격이 왜 저래!)
- Тоже мне город! (이것도 도시라구!)

— 중성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구조식들

Город как город (도시는 역시 도시이다!)

성구화된 로어문장은 또한 동의, 접수,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들(Схемы с выражением согласия, принятия, утверждения)로 구분할수 있다.

례: ◦ Ну что ж, завтра так завтра!(별수 있습니까. 래일이면 래일 할수 없지요.)

◦ А почему бы и не пойти к ним! (그들에게 못 갈 이유가 없지요.)

- Ну что же, приехал и приехал! (할수 있습니까. 그냥 왔지요.)
- Праздник есть праздник! (명절은 명절이다!)
- Это ли не счастье! (이것이야말로 행운이 아닌가!)

성구화된 로어문장은 또한 거절, 반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들(Схемы с выражением несогласия, возражения, отрицания)로 구분할수 있다.

- 례: ○ Какое там выздоровел! (다 나아지기도 했겠다!)
- Когда же (Куда же/Зачем) мне ехать!(내가 도대체 어떻게 간단말입니까!)
 - До театров ли мне! (내가 극장에 갈 형편이 됐소!)
 - А что ей (для нее) работа! (그 녀동무가 일할게 뭐요!)
 - Мало ли что ему помог! (그를 도와주었됐자 무슨 소용이 있소!)
 - Мне праздник не в праздник! (명절이 다 뭐야!)

성구화된 로어문장은 또한 불가피성, 합리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Схемы с выражением необходимости,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들로 구분할수 있다.

- 례: ○ Как не пойти! (안 갈수가 있습니까!)
- Тебе ли не быть довольной! (네가 만족하지 않을수 없지!)
 - Нет бы приехать пораньше! (좀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걸!)
 - Хоть уезжай отсюда! (여기서 떠나가버리는게 낫겠다.)

성구화된 로어문장은 또한 불필요성, 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Схемы с выражением ненужности, невозможности)들로 구분할수 있다.

- 례: ○ Не идти же пешком! (걸어서는 갈수 없어!)
- Фильм не такой интересный, чтобы смотреть его второй раз.
(영화는 다시 볼 정도로 재미있지는 않다.)
 - Чтобы он когда опоздал! (그가 언제 한번 지각한적이 있소!)
 - Мне ли с ним спорить! (내가 그와 논쟁해야 소용없다.)
 - Куда(Где) мне все это съесть! (내가 이걸 어떻게 다 먹는단말이야!)

성구화된 로어문장은 또한 단수,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Схемы с выражением единственности, множественности)들로 구분할수 있다.

- 례: ○ У нее только и радость, что работа. (그 녀자에게는 즐거움이란 일밖에 없다.)
- Хорошего здесь только то, что воздух чистый. (여기서 좋은것은 공기가 신선한것이다.)
 - С кем я только не советовался! (내가 의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 У нас что ни день, то какие-нибудь новости. (매일과 같이 새소식이다.)
 - Ему бы только читать! (그는 책읽을 생각밖에 없다.)
 - Бывают встречи и встречи. (면담이 그칠새 없다.)

성구화된 로어문장은 또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Схемы с выражением акцентирования)들로 구분할수 있다.

- 례: ○ Уж кто-кто, а она всегда поможет.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녀동무는 언제나 도와주거든.)

- Уж на что Петя, и то все сделал. (언제 보아야 뼈짜만은 다 해내거든.)
- Он не кто-нибудь, а педагог. (그는 다름아닌 교육자이다.)
- Но чему я особенно обрадовался, так это его приезде. (그렇지만 내가 특별히 반가운것은 그가 온다는것이다.)
- Кому как не молодым браться за новые дела!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을 맡아야지 그럼 누가 맡겠는가!)

성구화된 로어문장은 또한 논리적적약성, 상황적특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식 (Схемы с выражением логической обусловленности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енн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и)들로 구분할수 있다.

- 례: ◦ Работа работой, отдыхать тоже надо. (일은 일이고 휴식도 해야 한다.)
- Приехать-то он не приехал, но телеграмму прислал. (그가 오지는 못해도 전보는 쳤다.)
- Стоило нам выйти во двор, как дети окружили нас.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이들이 우리를 에워쌌다.)
- Добро бы сегодня погода была хорошая, а то ведь всю неделю шел дождь. (오늘 날씨라도 좋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주일간 계속 비가 온다.)
- Хочешь не хочешь, ехать все равно придется. (좋든 싫든 가야 한다.)
- Эту работу за неделю, да что там за неделю, за месяц не сделать. (이 일을 한주일동안에 한단말이지. 한주일이 다 뭐요. 한달동안에도 못할텐데.)

위의 실례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개 문장에는 고유한 구조식(모델 또는 схема конструкции)이 존재한다.

실례로 《Чем не + 명사주격》의 구조식은 《가장 적절한, 적합한》의 긍정적평가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며 반대로 《Что за + 명사주격》의 구조식은 《...도 ...인가!》라는 부정적평가의 의미를 가진다. 매개 레문들에서 밑줄로 표식된 부분들이 성구화된 문장구조식의 기본구조를 이룬다.

번역실천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성구화된 유사한 문장구조식들을 의미적으로 정확히 구분해보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해당 구조식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를 바로 규정하고 의미를 따져보아야 한다. 위에서 분석한 《Какой это концерт!》(이것도 공연이야!)와 《Какое там выздоровел!》(다 나아지기도 했겠다!)의 구조식들은 《Какой это + 명사주격》과 《Какое там + 동사과거형》으로서 전자는 평가의 의미를 나타내고 후자는 거절의 의미를 나타낸다.

구조식들속에는 서로 엇비슷한 형태들이 존재하므로 류형을 잘못 구분하는 경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례 - Отдых есть отдых! (휴식은 휴식이다.)

- Отдых не в отдых! (휴식이 다 뭐야!)

위에서 본 구조식들은 명사와 명사로 구성되어 식을 이루는 련결구에서의 약간한 차이를 가지고있으나(《명사주격 + есть + 명사주격》, 《명사주격 + не в + 명사대격》) 전자는 확인의 의미를 가지고 후자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

첫 문장에서는 주관양태적의미에서 확인의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고있는 과정을 명백

히 확정해준다고 볼 때 아래의 문장에서는 진행과정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본래 가지고 있던 좋은 성질을 상실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것을 나타낸다.

번역실천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로어의 성구화된 문장구조식들이 사용되는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여보는것이다.

어느 문형이나 마찬가지로 로어의 성구화된 문장구조식도 일정한 문맥속에서 실현되는것만큼 이야기되는 사건의 문맥속에서 연구하여야만 그 의미도 정확히 밝힐수 있는것이다.

실례로 《Затем он с досадой пробормотал: - Какая прелесть! Вот я полные ботинки в грязи тащил.》에서 등장인물이 발언하는 대사의 첫 문장을 통해서는 이야기되는 사건을 충분히 파악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첫 문장의 어휘적의미를 그대로 분석해보는 경우 прелесть라는 단어를 《아름답다, 멋있다, 훌륭하다》는 본래의 의미로밖에는 이해할수 없기때문이다. 노여움과 아쉬움, 불만과 격분의 감정이 안내문과 대사의 뒤부분을 통하여 즉 본문의 전반적인 문맥을 통해서만 말하는 사람의 주관양태적의미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게 된다. 이로부터 레문의 정확한 번역은 《다음 그는 분하여 이렇게 투덜거렸다. - 정말 멋있게 되었군! 구두를 온통 진탕속에서 끌고다녔으니.》라고 할수 있다.

번역실천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말하는 사람의 억양에 깊은 주의를 돌리는것이다.

로어회화에서 널리 사용되고있는 성구화된 문장구조식을 바로 이해하는데서 억양은 말하는 사람의 주관양태적의미를 규정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된다. 더우기 로어의 성구화된 문장구조식이 구조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로어의 일반물음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이것은 보다 심중한 문제로 나선다.

레: Какой он врач?

Какой он врач!

우의 실례의 첫 문장은 로어의 일상회화에서 볼수 있는 물음의 의미를 가진 대명사 Какой로 결합된 물음문으로서 억양구조 ИК-2로 쓰인다. 그러나 둘째 문장에서 Какой는 우와 같은 물음대명사로서의 사명을 상실하고 《Какой + 인칭대명사 + 명사주격》의 성구화된 문장구조식을 구성하면서 조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로어억양구조 ИК-7로 실현된다. 결국 두번째 문장에서는 의문을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그와 상반되는 강한 비난과 조소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로부터 우의 레문에 대한 번역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번역문: (비교)《그 사람은 무슨 일을 보는 의사입니까?》

《그 사람도 의사야?!》

이처럼 로어의 성구화된 문장구조식은 억양구조에서 일반물음문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로어회화의 극히 일부 성구화된 문장구조식은 로어억양구조 ИК-7외에도 ИК-5 또는 ИК-2로도 실현될수 있다.

레: Зачем тебе эта книга?!

우의 실례문장에서 Зачем은 물음대명사의 기능과 함께 조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로어억양구조 ИК-2 또는 ИК-5로 실현된다. 이 문장을 보통물음문으로 분석해보면 《너

에게 이 책이 왜 필요한가?》라고 볼수 있는가 하면 억양구조 ИК-5로 실현되는 경우에 물음의 의미와 함께 놀라움과 질책의 주관양태적의미를 가진 성구화된 문장구조식 《Зачем + кому + 명사주격》을 이루면서 《도대체 이 책이 너에게 무엇때문에 필요하단 말인가?!》로 번역된다. 즉 이러한 유형의 문장은 억양구조를 바로 분석할 때에만 진술의 목적과 말하는 사람의 주관양태적의미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로어회화에서 쓰이는 다양한 언어적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를 실천에 적극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로어의 성구화된 문장구조식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로어문장구조식, 성구화